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광양 김총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보성군, '하천·하구 쓰레기 제거' 연중 추진

쓰레기 처리·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 한번에

보성군은 겨울철 적지된 하천쓰레기와 여름철 집중호우 시 유입된 부유 쓰레기 제거를 위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군은 쓰레기 정화사업에 3천6백만 원의 사업비로 3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 하천 유입에 따른 수생태계 교란, 경관 훼손 등을 예방하고 환경 보존과 쾌적한 이미지 제

공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성강 등 주암호 상류 하천과 남해안 유입 하천을 대상으로 쓰레기 수거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연간 60톤의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사업참여 인력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모집하여 지역일자리 창출하고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는 전략

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부유 쓰레기는 행정과 주민이 한마음으로 대처해야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며, "폐농작물, 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이 대부분인 만큼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거나 방치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도 3천6백만 원의 사업비로 2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하천쓰레기 110톤을 수거하는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고흥군, 동계전지훈련 열기로 '후끈'



4개 종목 38개팀 1,200명 참가

고흥군은 금년도 동계 전지훈련으로 전국의 야구, 축구 등 38개팀 1,200여 명이 방문하여 전지훈련 열기로 가득하다고 밝혔다.

이번 전지훈련팀 유치로 약 16억여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관광비수기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하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천혜의 자연환경, 풍부한 먹거리 등으로 동계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어 매년 전지훈련팀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군에서는 선수들이 훈련에만 전념해 좋은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스토브리그 개최지원, 경기장 무료개방, 관내 숙박, 음식점업에 대한 위생지도와 자원봉사자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훈련팀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스포츠인프라 구축 일환으로 거금야구장을 신축하였고, 도화 베이스볼파크 야구장을 건립하여 올해 처음 동계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인적네트워크를 구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따뜻한 인정을 받은 고향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찾게 될 전지훈련팀에게 불편함이 없이 훈련에 집중하도록 민간군업체계를 강화해 다시 찾고 싶은 고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안병호 함평군수, AI 사전차단 방역 현장 점검

농가 초소 26개소 모두 방문하여 꼼꼼히 점검



안병호 함평군수는 30일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AI 사전차단 농가초소 현장 점검했다.

안 군수는 이날 농가초소 26개소 전부를 방문해 축수산과·안전건설과 등 관련 부서담당자와 비상근무자로부터 방역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본인이 직접 소독 기구부터 소독대상농가까지 꼼꼼히 살폈다.

안 군수는 "AI가 우리 군에 아직 유입되지 않은 것은 고무적이지만, 절대 방심하지 말고 AI가 소멸될 때까지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추운 날씨에도 고생하는 비상근무자분들과 그 통제를 믿고 따라주시

는 농가주 및 축산업관계자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드린다"고 위로의 말도 전했다.

한편, 함평군은 4년 연속 'AI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거점소독시설 1개소와 축산 차량 주요 통행로에 이동방역통제소 5개소를 설치하고, 산란계 3천수, 오리 2천수 이상 사육 농가 출입로에도 초소 26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3단 방역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군은 오리농장 중심으로 발생되던 AI가 최근 들어 전국 산란계농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계란유통, 사료배달 등 축산관련 차량과 소독시설을 거치지 않은 민간인의 농장내 빈번한 출입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군청 및 읍면 직원을 2개조로 편성하여 24시간 거점소독시설, 방역통제소, 농가초소를 빈틈없이 운영하고 있다.

함평=김광훈 기자

영광군, 주택용 슬레이트지붕철거 처리비 지원

영광군은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흡입으로 군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 속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건축자재이며 영광군에서는 지난 7년간 주택용 슬레이트 지붕 900동에 151,200평방미터의 슬레이트를 철거했다.

국비가 50%, 지방비 50%가 투입된 1억4천1백만원의 예산으로 슬레이트지붕 42개동을 철거하고 처리할 계획으로 가구당 최대 336

만원의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2월까지 대상자를 선별하고 본격적인 철거작업은 오는 3월부터 추진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 홈페이지 공고 고시란을 참고하거나 영광군 환경선립과(☎061-350-5379)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장성군, '광주·전남 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

행정서비스·창의혁신 등 6개 부문서 골고루 고득점

장성군이 '2018 광주·전남 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방자치경영대상은 광주·전남 27개 시·군·구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 서비스, 창의·혁신, 문화·관광, 보건·복지, 경제 활성화, 안전·환경, 인적 자원 육성 7개 부문에서 정부의 '열린 혁신'에 부응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으로 지역 경쟁력과 지역민 삶의 질을 높인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는 풀뿌리정책 경연이다. 광남일보가 주최하며 올해 9회째를 맞았다.

장성군은 행정 서비스, 창의·혁신, 보건·복지, 경제 활성화 등 6개 부문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30일 열주체육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행정 서비스 부문에서 장성군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군

정 방침으로 내걸고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상호 소통하는 기회를 조성한 점과 함께 권역별 이장 회의, 현장 간부 회의를 등으로 군민과의 소통에 적극 노력한 점을 평가받았다.

행정 혁신 부문에선 전국 최초 컬러 마케팅인 '엘로우시티 프로젝트'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최한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를 통해 100만명의 관광객을 모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점을 인정받았다.

보건·복지 부문에선 실버 복지 수준을 한 차원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성군은 광주·전남 최초로 현

대시 공공실버주택을 유지하고 독립노인요양병원과 치매거점센터 등 다양한 실버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 '효도권' 사업과 '토방 낮추기' 사업을 비롯한 이색 실버복지 시책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했다.

이밖에 장성군은 안전·교육 등 분야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었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군정 발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서준 군민들과 함께 수상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성=반정모 기자

영광군, '청년기자단' 10명 모집

영광군은 지역 청년들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청년활동을 확산시켜 나갈 '청년기자단' 10명을 공개 모집한다.

'청년기자단'은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 프로그램

사업을 취재하거나 청년·청년단체·지역우수기업 등을 찾아 취재하는 등 SNS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관내 주소를 둔 청년(만19세~45세) 중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아 취재를 하고 싶거나, 온라인 등 홍보활동에 능숙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청년기자단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명함을 지급하고 현직 언론인과의 만남 등의 활동혜택도 주어진다.

영광=서희권 기자

지역광고문의: 062-224-5800

062-224-5800

062-222-5548

湖南新聞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신행읍 오룡3길 2(전라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부·자문위원회)
 - 유관기관 연계로 통한 상담 무소요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의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